

월 양 계

2월 2호

- ◎ 지난해 11월 22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김제, 아산까지 4차례 발생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고병원성 시가 충남 천안의 산란계농장에서 지난 1월 19일 발병하면서 다시 양계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12월 인근 철새 도래지 2곳의 분변에서 HPAI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철새에 의한 감염이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양계농가에서는 야생조류가 축사·사료창고·분뇨처리장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등 차단방역을 설치하고 야외에서 키우는 가금을 축사에 가두고,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는 등 HPAI 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 종계 DB사업이 금년 1월부터 본회 홈페이지(<http://www.poultry.or.kr>)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되었다. 종계 DB사업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입식된 종계를 중심으로 4차례의 조사를 통해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에서 사육되는 육용종계, 준용종계, 산란종계의 사육수수 및 생산성을 매월 업데이트를 통해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보완작업을 통해 양계산업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지난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양계 의무자조금 사업이 금년에는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타 축종에서의 사업 진행으로 자조금 사업의 활성화가 양계산업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가운데, 육계와 산란계 모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의무자조금 시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일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육계의 경우 관리위원구성, 산란계의 경우 거출기관 지정 등의 난제가 있지만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양계사업의 숙원사업을 이루어가길 기대해 본다.
- ◎ 중국은 물론 동남아를 중심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에는 5일제가 확대되면서 아같은 현상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홍콩 등에서는 HPAI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남아를 다녀오는 양계인들은 그 나라 농장 및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방역을 철저히 한 후 입국해줄길 당부하는 바이다.

